

新字典의 漢字音 研究

— 특히 韻母의 對應을 中心으로 —

吳 鍾 甲

<內 容>

- | | |
|-------------|-----------|
| 1. 序 | 3. 韻尾의 對應 |
| 2. 韻部母音의 對應 | 4. 結 |

1. 序

本稿는 崔南善의 新字典을 資料로 하여 切韻系의 韻書인 廣韻의 206韻을 基準으로 하여 이것들이 國語漢字音에서 어떻게 對應反映되고 있는가를 考察하는 것이 目的이다.

그런데 廣韻 206韻의 體系를 보면, 平·上·去의 3聲은 聲調를 除外한 韻母의 音價가 같고, 또 이들 3聲은 入聲韻과는 韻尾音에 있어서만 對立을 보이고 있으므로 國語漢字音과의 對應關係 考察에서는 平聲으로 代表되는 61韻을 利用하는 것이 便利하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Princeton大學 編의 方言調查字表를 資料整理의 模型으로 利用하였으나 資料整理表에서는 平聲 61韻과 그에 對應反映된 國語漢字音의 韻部母音만을 提示하였으며, 記述의 便宜上 16韻攝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利用한 中古漢音의 音價는 Karlgren의 推定音價에 依하였다.

2. 韻部母音의 對應

먼저 資料整理表를 提示하고, 그 表에 따라 細部的인 考察을 하기로 한다.

韻部母音 對應表

韻攝	等韻	韻目	開合	中古音 音 價	國 語 漢 字 音									
					幫系	非系	端系	泥系	精系	莊系	知系	照系	日系	見系
果	1	歌	開	a			a						a	
		戈	合	ua	a		a						Wa	
	3	戈	開	ia								a		
			合	ia									wa	
假	2	麻	開	a	a		a		a				a	
			合	wa					wa					
	3	麻	開	ia			ja			ja			ja	
遇	1	模	合	uo	o		o						o	
	3	魚	合	i ^w o			jə	o	jə		ə	ə (jə)		
		虞		iu		u	u	ju(u)	ju	u	u, ju			
蟹	1	哈	開	ai			ɛ(Δj)					ɛ(Δj)		
		灰	合	uai	ɛ(Δj)	ɸ, ɛ(Δj)	ɸ					ɸ		
		泰	開	ai	ɛ		ɛ					ɛ		
			合	uai								ɸ		
	2	佳	開	ai	ɛ(Δj)			ɛ				ɛ		
			合	wai								wɛ		
	3	皆	開	ai	ɛ(Δj)			ɛ(Δj)				ɛ(Δj)		
			合	wai								ɸ		
		夬	開	ai(?)	ɛ			ɛ(Δj)						
			合	wai(?)								wɛ		
	4	祭	開	iei	je		je		je		je	je		
			合	i ^w ei			je		je			je		
		廢	開	iei							je			
合			i ^w ei		je						je			
4	齊	開	iei	je		je					je			

韻攝	等韻	韻目	開合	中古音 音 價	國 語 漢 字 音											
					幫系	非系	端系	泥系	精系	莊系	知系	照系	日系	見系	曉系	影系
蟹	4	齊	合	i ^w ei											ju, je	
止	3	支	開	ie	i		i	a(Λ)		i	a(Λ)		ij	i, ij		
			合	wie			ju			ju			wi(ju)			
		脂	開	i	i		i	a(Λ)		i			ij	i, ij		
			合	wi				ju					wi(ju)			
		微	開	ei										ij		
			合	w ^{ei}		i								wi		
	之	開	i			i	a(Λ)		i			ij	ij, i			
效	1	豪	開	au	o			o					o			
	2	肴	開	au	jo (o)		jo		jo(o)				jo			
	3	宵	開	ieu	jo		jo					jo				
	4	蕭	開	ieu			jo						jo			
流	1	侯	開	əu	u		u						u			
	3	尤	開	iəu		u			ju				u, ju			
		幽	開	iəu	ju								ju			
咸	1	覃	開	am			a	a(Λ)					a			
		談	開	am			a						a			
	2	咸	開	am					a				a, jə			
		銜	開	am					a				a			
	3	監	開	iem				jə			jə		ə			
		嚴	開	iem									ə			
		凡	合	i ^w em		ə										
	4	添	開	iem				jə					jə			
深	3	侵	開	iəm	i		i, i	a(Λ)	i	i, i	i	i				
山	1	寒	開	an			a					a				

韻攝	等韻	韻目	開合	中古音 音 值	國 語 漢 字 音										
					幫系	非系	端系	泥系	精系	莊系	知系	照系	日系	見系	曉系
山	1	桓	合	uan	a		a						wa		
			開	an	a				a			a			
	2	山	合	^w an									wa		
			開	an	a				a			a			
		刪	合	^w an					wa				wa		
			開	an	a				a			a			
	3	仙	合	i ^w en			jə				jə		ə	ə, jə	
			開	ien	jə			jə			jə		ə	ə, jə	
		元	合	i ^w en		ə								wə	
			開	ien										ə	
4	先	合	i ^w en				jə						jə		
		開	ien	jə			jə						jə		
臻	1	痕	合	uən	o, u		o, u		o, u				i, a(Λ)	ɪ	
			開	ən			a								
	3	眞	合	iuən										ju	
			開	ien	i			i	i, i		i			i, i	
		殷	合	iuən		u									u
			開	ien											i
宕	1	唐	合	^w aŋ									wa		
			開	aŋ	a		a						a		
	3	陽	合	i ^w aŋ		a								wa	
			開	iaŋ			ja	a		ja	a		ja		
江	2	江	合	uŋ											
			開	oŋ	a		a		a			a			
曾	1	登	合	uəŋ									ou		
			開	əŋ	u		i					i			
	3	蒸	開	ieŋ	i		i, i	i	i	i	i, i	i	i, u	i, i, ə, i	

韻攝	等韻	韻目	開合	中古音	國語漢字音												
					幫系	非系	端系	泥系	精系	莊系	知系	照系	日系	見系	曉系	影系	
曾	3	職	合	i ^w ək												jə	
梗	2	庚	開	eŋ	ɛ		ɛ(Δj)		ɛ(Δj), jə				ɛ(Δj), jə				
			合	^w eŋ									ɸ				
		耕	開	æŋ	ɛ(Aj)	jə			ɛ(Δj), jə				jə	ɛ(Aj)	ɛ(Aj)		
			合	^w æŋ										ɸ			
	3	庚	開	i ^w eŋ	jə											jə	
			合	i ^w eŋ												jə	
		清	開	ieŋ	jə		jə		jə			jə		jə			
			合	i ^w eŋ			jə					jə		jə			
	4	青	開	ieŋ	jə		ia					ia					
			合	i ^w eŋ								jə					
通	1	東	合	uŋ	o		o						o				
		冬	合	uoŋ			o					o		o			
	3	東	合	iuŋ	u(o)			ju					u, ju				
		鍾	合	i ^w oŋ		o	jo(o)	jo(ju)	jo	o	(ju)	o, jo					

- ※ 幫系：幫・滂・並・明母
 端系：端・透・定母
 精系：精・清・從・心・邪母
 知系：知・徹・澄母
 日系：日母
 曉系：曉・匣母
- 非系：非・敷・奉・微母
 泥系：泥・來母
 莊系：莊・初・床・山母
 照系：照・穿・禪・審・禪母
 見系：見・溪・群・疑母
 影系：影・喻(云)・喻(以)母

2. 1. 果 攝

① 果攝의 一等 開口音인 歌韻과 合口音인 戈韻의 中古漢音은 a와 ua로 서로 對立을 이루고 있는데, 國語漢字音에서도 牙音과 喉音에서는 開口音 a와 合口音 wa로 反映되고 있어 整然한 開合의 對應을 보여 준다. 그런데 合中音中 幫系, 端系, 泥系에서는 그 合口性을 喪失하고 a로 反映되었는데, 이는 幫系 p^w는 重唇音으로 그 聲母에 含有되어 있는 圓唇性에 介母 u가 吸收된 것으로 생각되며, 端・泥・精系는 그 調音時의 唇形이 平唇으로서, 圓

唇性的韻母 ua와 同時 調音되기는 무척 곤란하므로 韻母의 圓唇성이 消滅되고 開口音 a로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② 三等韻인 戈韻의 開合에 따른 中古漢音은 ia/iua인데, 國語漢字音도 a/wa로 對應反映되어 뚜렷한 開合의 對應을 보이나, 中舌의인 介母 i는 그 特性을 잃어버렸다.

위의 ①②에 依하여 볼 때, 果攝에서는 介母 u에 依한 開合은 區別 記述되나, 介母 i에 依한 等韻의 區別은 反映되지 않고 있다.

2.2. 假 攝

① 二等韻인 麻韻의 開合에 따른 中古音은 a/wa인데, 國語漢字音도 a/wa로 對立反映되어 開合이 區別 記述된다.

② 三等韻 麻韻은 開口音만이 나타나는데, 中古音은 ia로서 國語漢字音에서도 介母 i를 유지하여 ja로 反映되었다.

위의 ①②에 依하면, yod에 依한 等韻의 區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果攝의 中古音은 그 核母가 a로서 後舌低母音이며, 假攝은 a로서 前舌低母音인데, 國語音에서는 다 같이 a로 反映되어 舌位의 前後에 따른 辨別은 不可能했음을 알 수 있다.

2.3. 遇 攝

① 一等韻에는 合口音인 模韻 하나가 있는데, 中古音은 uo로서, 國語漢字音에서는 介母 u와 核母 o가 縮約되어 o로 反映되었다.

② 三等韻에는 合口音 魚韻과 虞韻의 둘이 있다.

먼저 魚韻을 살펴 보면, 魚韻의 中古音은 i*o로서, 國語漢字音으로서는 泥·精·知·照·日系는 jo로 反映되고, 見·曉系에서는 o로 反映되었으며, 莊系에서는 o로 反映되어 세 種類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jo로 反映된 것의 理由를 살펴 보면, 泥·精·知·照·日系는 硬口蓋音의인 聲母이므로 介母 i와 結合될 때는 無理가 없어 介母 i가 反映되어 jo로 나타나고, 見系와 曉系는 軟口蓋音의 聲母를 지닌 것으로, 介母 i와 結合될 때는 그 實現에 困難性이 있어 介母 i가 省略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影系에는 o와 jo의 兩樣으로 反映되었는데, 口蓋音的 要素를 지닌 聲母 喻(以)系의 字는 介母 i가 反映되어 나타나고 非口蓋音의 聲母인 景母와 喻(云)系의 字는 介母 i가 省略된 것이다. 그리고 特異한 反映으로 莊系에서는 o로 反映되고 있는데, 이에 對한 說明은 學者에 따라 差異가 있어, 近代音의 特徵이라고 하는 學者도 있고, 또 切韻보다 오히려 더 古層인 上古漢音

의 反映이라고 하는 學者도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 兩者에 同調를 하지 않는다. 그 理由는 四聲通攷 凡例에 依하면, “凡齒音齒頭 則舉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 卷舌點腭 故其聲深”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整齒音이 國語의 「ㅅ, 스, ㅈ」보다 調音部가 口腔의 後部에 位置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母音에 있어서도 前舌高母音에서 後舌低母音으로 갈수록 其聲이 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深聲을 聲母로 가진 莊系의 特性을 잘 反映하기 위해 國語漢字音은 그 韻母에 있어서 高母音인 介母 i와 w를 省略하고 그들보다는 低舌이고 또 後舌인 核母 o만 反映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虞韻에 對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虞韻은 中古漢音이 iu로서, 國語漢字音에서는 u와 ju의 둘로 反映되는데, 口蓋 前面에서 調音되는 精·知·莊·照·日系와 口蓋音의 要素를 지닌 喻(以)系에서는 介母 i가 反映되어 ju로 나타났고, 口蓋後面에서 調音되는 曉·影·喻(云)系는 聲母와 韻母의 結合時 發音의 困難性으로 因하여 介母 i가 省略되어 u로 反映되었으며, 非系Pj는 聲母가 지닌 口蓋的 要素에 介母 i가 吸收되었다. 資料에 依하면 泥系의 字로는 來母만이 나타났고, 그것도 反切上字로 볼 때 口蓋的 聲母인 力lj部類에 屬하는 字로서, 위의 說明方法에 따른다면 ju로 反映되어야 마땅한데도 u로 反映되어 있어 疑問點을 남기나, 精·莊·知·照系에서 同一字가 ju와 u의 兩樣으로 反映되어 單母音化의 傾向을 볼 수 있는 點으로 미루어 力lj部類의 字에서는 單母音化가 보다 일찍 進行된 것이 아닌가 한다.

2.4. 蟹 攝

① 一等 開口音에 哈韻과 泰韻의 둘이 있고, 合口音에도 灰韻과 泰韻의 둘이 있어 各各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다.

開口 哈韻의 中古漢音은 ai, 合口 灰韻의 中古漢音은 uai로서, 國語漢字音에서는 哈韻은 一律의으로 ε(Aj)로 反映되었는데, 同一韻이 ε와 Aj의 二重音價로 反映된 理由는 國語에 있어서 字典이 지닌 保守性 때문에 Aj音에서 ε音으로, 즉 複母音이 單母音化되었음을 示唆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合口 灰韻은 國語音에서 幫母를 除外하고는 모두 ø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整然하다. 그런데 幫母에서 ε(Aj)로 反映된 理由는 聲母 自體에 圓唇性이 內包되어 있어 介母 u가 聲母에 吸收된 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舌音系에서도 간혹 ε(Aj)로 反映된 것이 있는데, 이는 唇音의 경우가 影響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泰韻은 ai/uai로 開合의 對立을 이루는데 國語漢字音에서도 各各 ε와

φ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整然하다.

② 二等韻에는 佳·皆·夬의 세 韻이 있어 各各 開合으로 對立되어 있다.

佳韻의 中古漢音은 開口일 때 ai, 合口일 때는 *ai로서, 國語音에서는 各各 ε와 we로 區別反映되었다. 皆韻은 ai/*ai로서, 國語音에서는 ε/φ로 區別反映되어 開合에 따른 區別이 記述된다. 夬韻은 ai/*ai로서, 國語音에서는 ε/we로 反映되어 開合에 따른 區別이 記述된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을 끄는 것은 核母音이 短母音 a인 皆韻의 合口音은 單母音 φ로 反映되고, 長母音^a인 佳·夬韻은 複母音 w^ε로 反映된 것이다.

③ 三等韻에는 祭韻 iei/i*wei와 廢韻 iei/i*wei의 둘이 있어 開合으로 對立되고 있는데 國語漢字音에서는 全部 je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無視되고 있다.

④ 四等韻에는 齊韻 iei/i*wei 하나가 있어 開合으로 對立되고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主로 je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無視되고 있다. 그런데 特別히 注意를 끄는 것은 齊韻의 合口音에서 圭, 闕, 奎, 攜, 駐 등의 平聲字는 모두 ju로 反映되고 桂, 惠, 慧 등 去聲字는 je로 反映되어 聲調에 따른 區別反映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蟹攝에서는 yod에 依한 等韻의 區別反映이 記述된다.

2.5. 止 攝

① 三等韻에는 支·脂·微·之韻의 넷이 있는데, 이 中 支ie/*wie, 脂i/*wi, 微韻ei/*wei은 開合으로 對立을 이루고 있다.

먼저 開口音에 對하여 國語漢字音의 反映을 살펴 보면, 支·脂·微·之韻은 幫·非·端·泥·知·照·日·喻(以)系는 i로, 精·莊系는 a(Λ)로, 見·曉·影·喻(云)系는 ij로 反映되는데, a(Λ)로 反映된 것은 上古音의 核母 a의 反映으로 생각되며, ij로 反映된 것은 上古音 核母 a가 三等韻이 지닌 介母의 性質과 同化되어 中舌母音으로 反映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合口音을 살펴 보면, 牙·喉音에서는 wi로, 餘他的 경우는 ju로 反映되는데, 그 理由는 牙·喉音의 聲母는 軟口蓋와 喉頭에서 調音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母音 역시 後舌母音이 오는 것이 發音되기 쉬운 性質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前舌+後舌로 되어 ju로 反映될 것이 後舌+前舌로 되어 wi로 反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調音時에 口蓋後面에서 口蓋前面으로 調音點을 옮겼다가 다시 口蓋後面으로 調音點을 옮기는 것보다 口蓋後面에서 口蓋前面으로만 調音點을 바꾸는 것이 發音上 容易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微韻의 非系에서는 合口음이 i로 反映되고 있는데, 이는 그 聲母가 지닌 圓唇性 때문에 介母 w가 吸收된 것이다.

2.6. 效 攝

① 一等韻은 豪韻 au 하나만이 있는데 開口音이다.

國語反映音은 o로서 後舌低母音인 核母 a와 後舌高母音인 韻尾 u가 結合하여 國語音으로 反映될 때 後舌中母音으로 對應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二等韻은 肴韻 au로서 開口音이다.

國語反映音은 jo로 나타나는데, 이는 前舌低母音인 核母 a와 後舌高母音 韻尾 u가 國語音에 反映될 때, a가 지닌 前舌的 要素가 半母音 j로 對應되고, 核母 a에서 前舌的 要素를 뺀 後舌母音 a와 韻尾 u가 結合하여, 앞의 豪韻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語音에서 o로 反映된 것으로 解釋된다. 그리하여 $j + o = jo$ 로 反映된 것이다.

au > iau > jo

③ 三等韻 宵韻 ieu와 四等韻 蕭韻 ieu는 둘 다 開口音으로, 國語音에서는 全部 jo로 反映되어 介母 i와 i는 구별없이 半母音 j와 對應된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效攝에서는 yod에 依한 等韻의 區別이 잘 記述되고 있다.

2.7. 流 攝

① 一等 開口音 候韻 əu은 國語音에서 全部 u로 反映되었다.

② 三等 開口音으로는 尤 iəu, 幽 iəu의 둘이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주로 ju로 反映되었으나 尤韻 中 非系와 見·曉·影·喻(云)系에서는 u로 反映되었는데 그 理由는 非系 Pj에는 聲母 自體에 口蓋音的 要素가 있기 때문에 介母 i가 吸收된 것이고, 牙音과 喉音은 口蓋後面에서 調音되는 聲母이기 때문에 前舌的인 介母가 結合될 때는 發音에 困難이 따르기 때문에 介母 i가 省略된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보면 流攝은 等韻에 따른 區別이 잘 記述된다.

2.8. 咸 攝

① 一等韻에는 覃韻 am과 談韻 am의 둘이 있는데, 둘 다 開口音으로 國語漢字音의 反映音은 a이다. 그러므로 中古音의 母音의 長短은 國語漢字音에 反映될 때 辨別的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二等韻에는 咸韻 am과 銜韻 am의 둘이 있는데, 둘 다 開口音으로 國

語漢字音은 a로 反映되어 核母의 長短은 國語音에서는 辨別의으로 反映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며, 一等韻의 核母 a·a와 二等韻의 核母 a·a가 모두 國語音에서 a로 反映되어 母音의 前後舌도 辨別의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二等韻에서 特히 注意를 끄는 것은, 威韻의 入聲字 中 그 聲母가 牙音과 喉音에서 j로 反映되었다는 點이다.

③ 三等韻에는 開口音에 鹽韻 iem과 嚴韻 iem의 들이 있고, 合口音에는 凡韻 i^wem이 있다.

開口音의 國語音은 主로 j로 反映되었으나, 牙音과 喉音에서는 o로 反映되고 있는데, 이는 介母 i가 牙·喉音系의 聲母와 結合할 때의 調音의 困難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合口音은 非系에서만 나타나는데, 全部 o로 反映되었다. 이것은 非系가 지닌 合口性과 口蓋音의 性質 때문에 介母 i와 w가 聲母에 吸收된 것으로 생각된다.

④ 四等韻에는 開口音의 添韻 iem이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모두 j로 反映되어 介母의 性質이 잘 記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威韻에서는 介母 w에 依한 開合의 對立은 잘 記述되지 못하고, yod에 依한 等韻의 對立은 잘 反映되고 있다.

2.9. 深 攝

① 三等 開口音으로 侵韻 iem이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唇音과 牙·喉音에서는 介母 i의 性質이 吸收되어 i로, 泥·精·照系에서는 i와 i의 混亂을 보이고 있으며, 知·日系는 i로, 莊系는 a(Λ)로 反映되어 複雜한 樣相을 보여준다. 그런데 筆者가 利用한 方言調查字表에서는 侵韻에서 三等 開口音만을 設定하고 있으나, 一般의으로 中古音에서는 이를 三·四等으로 兩分하고 있으며, 侵韻 中 i로 反映된 것은 四等韻에 屬하는 字이다. 莊系의 a(Λ)는 上古音의 核母 o를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0. 山 攝

① 一等 開口音으로 寒韻 an, 合口音으로 桓韻 uan이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開口音은 a로, 合口音은 牙·喉音系는 wa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나타나나, 唇音과 舌音에서는 a로 反映되어 合口性이 喪失되었다. 그 理由는 唇音 p^w에서는 그 聲母가 지닌 合口性 때문에 介母 u가 吸收된 것이며, 舌音系는 그 調音時의 唇形이 平唇으로서 圓唇性의 介母 u와 同時 調音되기는 무척 곤란하므로 韻母의 圓唇性이 消滅되고 開口音 a로 反映된 것으로 생각

된다.

② 二等韻에는 山韻 an/*an, 刪韻 an/*an의 둘로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는데, 國語漢字음에서도 역시 a와 wa로 나타나 開合의 對立이 整然하다.

③ 三等韻에는 仙韻 ien/i*en, 元韻 ien/i*en의 둘로 開合의 對立을 이룬다.

먼저 開口音을 살펴 보면, 國語音에서는 泥·精·知·照·日·喻(以)系는 jə로, 見·曉·影系는 ɔ로 反映되었는데, 이는 牙·喉音系의 聲母가 口蓋後面에서 調音되므로, 介母 i와 結合할 때 그 調音의 困難性 때문에 介母가 脫落되고 ɔ로 反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合口音의 國語音에서의 反映을 보면, 牙·喉音系는 wə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應이 整然하게 記述되는데, 舌音系에서는 jə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無視되고 있다. 그런데 元韻 合口音 中 非系는 ɔ로 反映되었는데, 이는 非系 聲母가 지닌 合口性 때문에 介母 w가 앞의 聲母에 吸收되었기 때문이다.

④ 四等韻에는 先韻 ien/i*en이 있어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으나, 國語音에서는 開合의 區分없이 jə로 反映되었다.

以上에서 본 바에 의하면, 山攝에서는 yod에 依한 等韻의 區別이 잘 反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1. 臻 攝

① 一等韻 痕韻 ən과 魂韻 uən은 開合으로 對立되었는데, 國語音에서는 開口音은 a(Λ)와 i의 둘로 反映되었다. 資料에 依하면 同一字가 a와 Λ의 두 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字典이 지닌 保守性, 때문에 古音 Λ가 a로 變遷되는 過程을 보여 주는 것이다. 合口音은 牙·喉音系는 o로 反映되고, 唇音과 舌音에서는 o와 u의 混亂을 일으키고 있다.

② 三等韻은 眞韻 iən과 諄韻 iuən, 殷韻 iən과 文韻 iuən이 各各 開合으로 對應되어 있다.

먼저 眞韻과 諄韻의 國語反映音은 開口에서는 i로, 合口音에서 ju로 反映되어 整然한 對立을 보여 준다. 그런데 開口音에서 莊·牙·喉音系에서는 i로 反映된 것이 상당수 있다.

다음 殷韻과 文韻의 國語音은 開口에서는 i로, 合口에서는 u로 反映되어 開合의 對立이 整然하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臻攝에서는 開合 및 等韻의 對立은 잘 나타나고 있다.

2. 12. 宕 攝

① 一等韻 唐韻은 中古漢音이 $aŋ/waŋ$ 으로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는데, 國語音에서도 $aŋ/waŋ$ 으로 對立되어 介母 w 에 依한 整然한 對應을 보여 준다.

② 三等韻 陽韻은 中古漢音이 $iaŋ/iwaŋ$ 으로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다.

國語音에서는 開口音에서 見系와 莊系에서는 a 로 反映되고, 餘他の 경우는 ja 로 反映되었는데, 筆者가 利用한 方言調查字表에서는 三等韻에 屬하는 字들이 中古漢音에서는 三·四等으로 兩分되어 있어 四等韻에 該當하는 字가 그 介母 i 때문에 ja 로 反映된 것이다.

合口音은 wa 로 反映되어,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聲母 自體가 지닌 合口性 때문에 介母 w 가 吸收된 것이다.

2. 13. 江 攝

① 二等 開口音으로 江韻 $aŋ$ 이 있는데, 國語音은 모두 a 로 反映되었다.

2. 14. 曾 攝

① 一等 登韻 $aŋ/uaŋ$ 으로 開合으로 對立되고 있는데, 國語音에서 開口音은 i 로 反映되었고, 幫系에서만 u 로 反映되었는데 이는 唇母音化의 結果로 생각된다.

合口音은 o 와 u 의 混亂을 보이고 있다.

② 三等韻에는 蒸韻 $ieŋ$ 과 職韻 $iwaŋ$ 이 開合으로 對立되고 있는데, 國語音에서는 開口音의 主流音은 i 이나, i 로 反映된 것도 多數 있으며, 特히 入聲에서는 o 으로도 反映되어 많은 混亂을 보인다.

合口音은 ja 로 反映되었다.

2. 15. 梗 攝

① 二等韻에는 庚韻 $aŋ/waŋ$, 耕韻 $aŋ/waŋ$ 의 둘로 各各 開合의 對立을 이루고 있다.

國語音에서는 庚韻과 耕韻의 區別 없이 開口音에서는 $\epsilon(Aj)$ 로, 合口音에서는 ϕ 로 反映되어 開合이 對立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開口音에서 ja 로 反映된 것도 있다.

② 三, 四等韻에서는 開合의 對立 없이 모두 ja 로 反映되었다.

2. 16. 通 攝

① 一等韻에는 東韻 $uŋ$ 과 冬韻 $uŋ$ 의 둘이 있는데, 둘 다 合口音이다.

國語音에서는 모두 o로 反映되었다.

② 三等韻에는 東韻 iuŋ과 鍾韻 iʷoŋ의 둘이 있어 둘 다 合口音이다.

國語音에서는 東韻은 u와 ju의 둘로 나타나며, 鍾韻에서는 o와 jo의 둘로 反映되어 中古漢音의 核母 u와 o에 따른 對立的 反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東韻 中 u로 反映된 字는 그 聲母가 非·見系로서 唇音 非系 Pj가 지닌 口蓋音의 要素에 介母 i가 吸收된 것이며, 牙音인 見系는 口蓋後面에서 調音되고 介母 i는 口蓋前面에서 調音되기 때문에 同時調音이 매우 곤란한 경우이다. 그리고 ju로 反映된 字類의 聲母를 보면, 舌音系와 齒音系로서 介母 i와는 比較的 同時 調音이 容易한 것이다. 曉·影母에서는 u와 ju의 둘로 反映되었는데, 硬口蓋音의 聲母를 지닌 曉(許)系 xj와 喻(以)系 yj는 國語音에서 ju로 나타났다.

다음 鍾韻을 보면 國語音이 o와 jo로 나타나 東韻과 比較할 때 o와 u의 차이는 있으나, 그 對應樣相은 東韻과 마찬가지로이다.

위의 ①②에서 볼 때, 通攝에서는 yod에 依한 等韻의 對立이 記述되고 있다.

3. 韻尾音의 對應

中古漢音의 韻尾는 크게 無尾韻인 陰韻과 有尾韻인 陽韻의 둘로 區分되는데, 陰韻은 다시 韻尾音에 따라 ϕ , u, i의 셋으로 나누어지고, 陽韻은 ㅍ·上·去聲韻의 韻尾音 m, n, ŋ과 그에 對立되는 入聲韻尾 p, t, k가 있는데, 이들의 國語漢字音에서의 對應關係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韻尾音 對應表

韻尾	陰韻			陽韻		
韻攝	果假遇	效流蟹	止	咸深	山臻	宕江梗曾通
中古漢音	ϕ	u	i	m(p)	n(t)	ŋ(k)
國語音		ϕ		m(p)	n(r)	ŋ(k)

위의 表에 依하면, 中古音 韻尾 u와 i는, 모두 核母와 結合되어 韻部母音으로 處理되어 國語漢字音에서는 韻尾音 ϕ 로 反映되었으며, 陽韻 韻尾音은 中古漢音과 다름이 없으나, 오직 入聲韻尾 t가 r로 對應되고 있는데, t>r의 現象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에 對해서는 더 많은 考察을 必要로 한다.

4. 結

新字典에 나타난 國語漢字音의 韻母에 對하여 살펴 보았으나, 漢字音 研究 自體가 歷史的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아직 古代漢字音의 研究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 考察에 無理가 따르나, 以上에서 考察한 바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① 國語漢字音의 韻部母音은 一等과 二等, 三等과 四等の 介母의 差異는 잘 記述되지 못하나, 一·二等과 三·四等, 即 yod에 依한 區別은 잘 反映되고 있다.

② 介母 w의 有無에 依한 開合의 對應反映이 記述된다.

③ 聲母와 韻母가 結合하여 調音될 때, 그 調音의 難易度가 國語韻部 母音의 對應反映에 큰 影響을 끼치는데, 이 경우에는 聲母에는 別다른 變化가 없고, 韻母 自體에서 聲母에 잘 結合될 수 있는 母音으로 變化를 일으킨다.